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 말라

☞ 19면에서 계속

보는 때도 있고 적게 피해를 보는 때도 있습니다. 이게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을도 가을 나름이요, 봄도 봄 나름이요, 겨울도 겨울 나름이다 이겁니다. 여름도 여름 나름이고.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서 업보를 만들고 유전을 만들고 인과를 만듭니다. 그저 이 세균도 업신여기고 저런 지렁이도 업신여기고 그러지만 여러분 배 속에는 지렁이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여러분 배 속에 없는 게 없이 모습도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나, 그놈들이 소임을 맡아 가지고 운행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사랑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신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벌레를 보면 아주 징그럽다고 하죠. 나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모습은 그렇겠죠. 그러나 마음이야 어찌 둘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마음이 착하고 어질고 참 욕심 없는 사람이 돈을 왕창 벌었을 땐 남하고 같이 나눠 쓰지만, 마음이 강하고 아주 욕심 많고 그냥 못된 사람이 돈을 왕창 벌면 그거는 허튼 데다 쓰는 겁니다. 나쁜 짓만 하죠. 그렇듯이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짐승들도 모두 그렇죠. 그래서 독 있는 풀이 이슬을 맞으면, 그 이슬은 아주 참 감로수와 같은 물인데 그 독풀이 빨아들이면 독이 돼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약풀이 마시면 약이 된다 이거야, 사람을 살리는. 응? 이러니 누구 탓입니까, 이게 다? 다 여러분 탓이지. 이 모두가 여러분이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항상, 가정에서도 배신을 당했다 하더라도,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라는 애깁니다.

지금 여기 선원에는 정신이 좀 잘못된 이러한 분들도 많고 백혈병이니 또는 골수암이니 또는 무슨 암이니 속앓이니 뭐, 별 병이 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을 다 가지고 여기 재료로 삼아서 옵니다. 그러나 그게 재료지 여기에 의사가 있어서 병 고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맡기고 거기서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을 합니까? 몸속에도 중생들이 소임을 맡아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모든 자기입니다, 자기. 네?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세균이 여러분이 아니고 딴 분입니까? 그러니까 각각 다 소임을 맡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파업을 일으켜서 잘못한 거라면 거기서 가라앉히고 거기서 낫게 해야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70% 정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전부터 말을 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병이 들면은 인간이 허무하고 정말이지 살맛이 안 나고 죽고만 싶고 허망하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허망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만사가 무상한 것을 알면서 도리어 이가 앙다물어지면서 나는 이 도리를 알아야겠다는 그 각오가 뚜렷하게 섭니다, 오히려.

언젠가는 아파서, 언젠가는 사대가 흩어져서 허망한 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갈 때 한데 모였다가,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져서 딴 구름하고 또다시 모이듯이, 인간도 사대로 흩어져서 바람으로 물로 불로 흙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원점으로 도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모의 뼈와 살을 받아서 몸을 받되 그것이 한데 모여서 거기 가서 다시 또 태어나서 인간으로 성장이 되니깐요.

인간뿐만 아니라 마음을 잘못 썼다 하면 소로도 태어나고, 독사로도 태어날 수 있고, 개로도 태어날 수 있고, 만약에 마음을 잘 썼다면 사람으로 태어나되 장관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대통령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을 다 누빌 수 있는 그런 통달한 성인이, 성자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 마음, 그 마음이 천차만별의 이 모든 살림살이들을 들고 내는데 그놈이 하는 거로구나 하고 믿고 거기에 맡겨 놓고 좀 더 한 걸음 뛰어넘을 수 있는, 도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좀 더 이끌어 보십시오. 그럼 오늘 질문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난 오늘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늙으면 이 몸뚱이는 쇠약해지죠. 저 나무도 늙어서 고목이 되면은 껍데기가 흐치흐치해지고 진물이 나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채공도 해 보고 공양주도 해 보고 또는 불목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안 해 본 것 없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했죠. 물지게를 안 졌나. 물지게 지는 건 그냥 한 번 이렇게 지는 게 아닙니다. 일 전을 가지고 가면 오 푼에 한 통씩이니까 그 일 전을 가지고 가면은 한 지게죠. 한 지게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그걸 받아서 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샤쓰가 있고 신발이 올바른 게 있었다면 고생도 덜했을 텐데, 그런 거를 사서 떨고 섰다가 그거를 지고 오면 지고 오는 대로 엎질러지면 그 귀한 물을 엎질렀다 이거죠. 신발은 반짝짜리 게다를 끌어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내 인생을, 그렇게 채찍들이 가차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도 누구 원망을 안 했습니다. 단 "엄마!" 이렇게 부를 거를, 이 속으로 '아빠!' 그러고는 아빠 한마디 목이 메어서 불러 놓고는 우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 나이에. 아홉 살부터 말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어떡하면 있는 사람 거를 훔쳐다가', 허허허, '그 고생하는 사람한테 몰래 밤중에 갖다가 주면 얼마나 좋을까? 굶고 부황이 났을 때 이거를 훔쳐다 주어서 거기다가 갖다가 놓으면, 그거를 아침에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엉뚱한 생각에 밤을 허옇게 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밀고 나가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를 나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랬으니깐요.

이 무심 도리라는 것이 전체…, 이게 고만둔다고 하고 또 자꾸 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아니, 그거를 보이지 않는데, 내 몸이 보이질 않아야 가지고 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 몸이 보이는데 붙잡히지 그게 붙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붙잡히지 않는 그런 도리를 아주 밤이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는…. 그냥 드러누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눈물이 흐르고,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입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신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낫겠지만, 나야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거지가 아니라 돈 몇 푼 주는 것도 받지 않았죠. 그저 다만 얻어먹은 거는 간장물밖엔 없었습니다. 가다가 쓰러져도 그대로 인생이 한 번 죽는 거, 죽으면 죽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그냥 걸어갔을 뿐이죠. 나한테 닥치는 거 마다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더군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조그마한 초립동이가, 아니 조그마한 동자가 행전을 상그렇게 매고 키 하나를 들고선 허공에 나섰습니다. 허허허, 그것이 은사가 키 하나를 들려서 내보낸 거죠. 그거를 영 스무 살이 되도록 몰랐다가 그게 의문이 났습니다. '키 하나를 줘서 내보내다니 참, 그게 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벼는 찧어 놨으나 까부르질 않아서, 닦아라 이 소리지. 벼는 다 절구질을 해서 찧어 놨으나 아이, 까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까부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키 하나 줘서 내보낼 수밖에.

그 어린 게 키 하나를 들고 사막 같은, 엊그저께 그 콜로라도에 갔을 때의 그 끝도 없는 사막과 같았어요. 끝도 없어, 하여튼. 황야야, 그냥. 그 황야를 그때에 보는 그 심정이야. 어린 동자가 키 하나를 들고 나섰다 이거야. 갈 데 못 갈 데 뭐, 증명해 놓은 무슨, 아니, 그 주막이 있습니까? 이 진리라는 건 주막도 번지수도 없는 겁니다. 끝도 기약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자리를 마련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키 하나 들고 그냥 나섰죠.

그 키는 누가 줬느냐고요? 허허허. 은사죠. 내 은사. 내 은사는 내 가슴에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 키를 집어라.' 그, 남이 내버린 키야. 이거를 하나 집고, 그걸 몰랐단 말이야, 글쎄. '그 키를 집어라.' 집었지. '이걸 가지고 가자.' 가라 이거야. 그걸 들고서 가다가 보면은 또 바닥이 차면 그걸 깔고 앉고 그랬지 뭐, 모르니깐. 허허허. 나 참 재미있게 살았다고. 얼마나 인생을 재밌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그런 맛을 못 볼 거야, 아마. 못 봤을 거야. 음. 그 어디 가서 앉았으면, 돌에 앉았으면 그것 깔고 앉았고, 풀에 앉아도 때에 따라서는 그것 깔고 앉고. 아,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홀연히, 그 키가 그 키가 아니라, 키가 아니라 키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당신은 정말 이 세상을 줘도 바꿀 수가 없는 당신이오. 당신을 보고 싶소.' 하고서 하니까 '야, 색경을 봐라.' 그래. 허허허, 그랬던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도, 이것이 무슨 뭐, 경을 보고 설법을 듣고 뭐, 절집에 왕래를 자주 하고 이랬어야 알지. 그래서 어느 큰스님을 찾아가서 점검을 자꾸 했던 거지. 내가 그렇게 발부터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도 모두 발부터 들어서지 않아. 이건 그냥 결사적으로 발부터 들어서야지. 둘이 아닌 까닭에 너는 너고 나는 나기 때문에 발부터 들어서야 된다 이 소리야. 그냥 너는 너. '대행 스님은 저기 그냥 계시니까, 난 여기 있으니깐' 이럭하고,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 응?

그런데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따로따로, 모습은 따로따로 돼 있는 거야. 저 봐. (천정의 전등을 각각 가리키시고) 셋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 그렇지만 전력이 똑같은데 어찌 따로따로 있는 거냐 이거지. 전력이 없다면 저거 빈 전구밖에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척척 떼 버리겠지. 마음대로들, 이건 자유니까. 공부를 하고 못 하고는 자유야.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고 나중 들어오고 그게 없습니다. 이 선맥을 이어받는 데는 나중 들어오고 먼저 들어오고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공부 열심히들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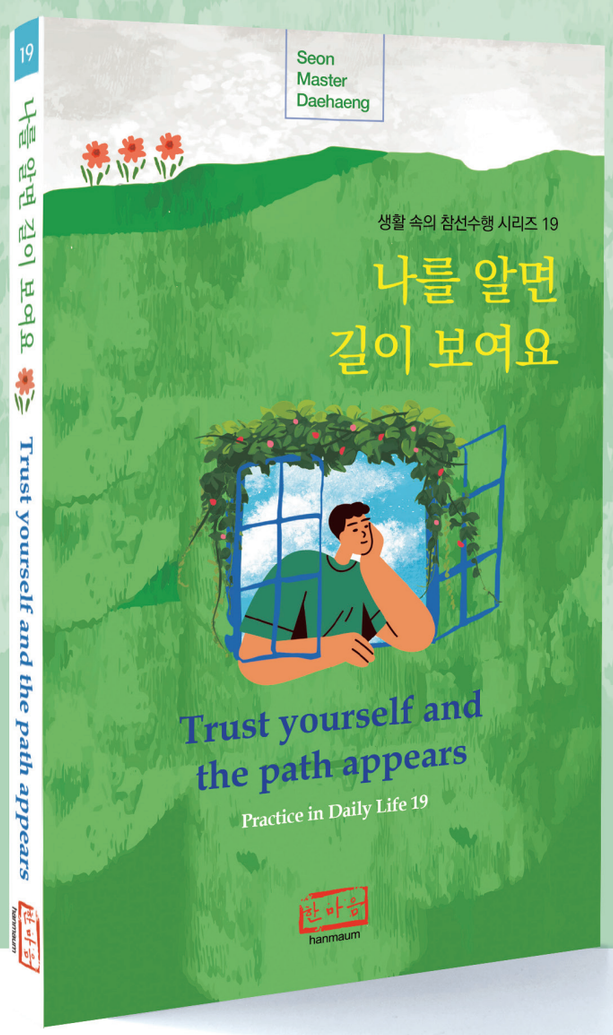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6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 거,
무와 유, 이 세상만사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부터 알아야
그 하나마저도 없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